

 국토교통부	<h1>보 도 자 료</h1>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하나 된 열정 하나 된 대한민국 
	배포일시	2018. 2. 1(목) 총 9 매 (본문2)	
담당 부서	국토정책과	담 당 자	• 과장 김규철, 사무관 한동훈, 주무관 송철현 • ☎ (044) 201-4731, 4730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조사과	담 당 자	• 과장 한명희, 사무관 신상호 주무관 임건혁 • ☎ (031) 210-2712, 2690
보 도 일 시		2018년 2월 2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2. 1.(목) 11:00 이후 보도 가능	

“우리 동네 어린이집 얼마나 가까운지 한눈에 확인 가능해요” 공원·교통·문화·체육 등 생활기반 시설 접근성 격자 형태로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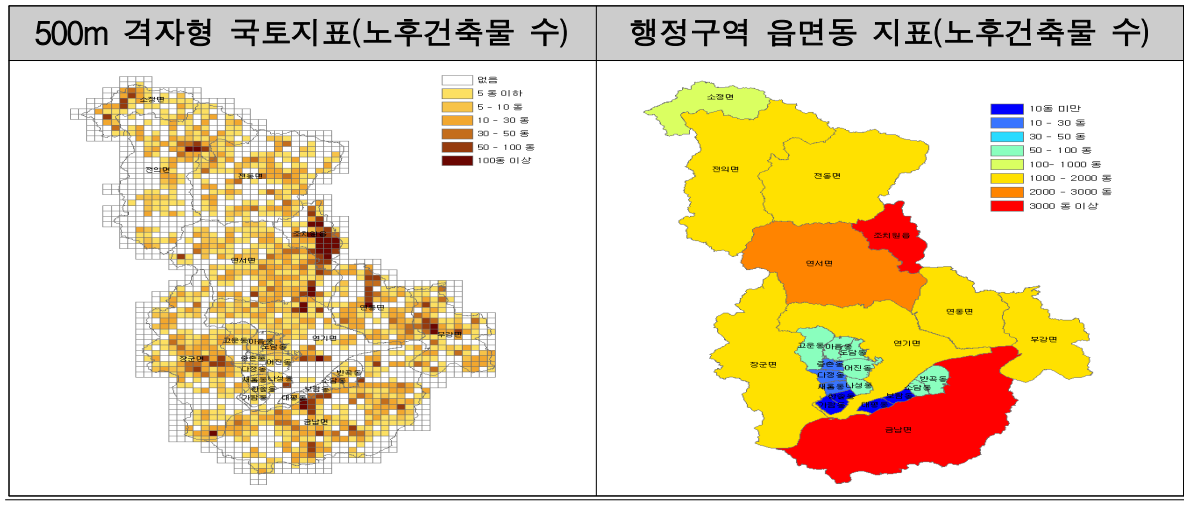
□ 앞으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어린이집, 도서관, 노인여가복지시설 등 생활 기반시설의 접근성을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토 모니터링 강화를 위하여 격자* 기반의 국토정책지표(7개)**를 구축하여 공표한다.

* 국토를 직각으로 교차하는 가로와 세로 선으로 구분하여 표현하는 공간 단위(100m×100m, 500m×500, 1km×1km 등)

** 국토변화 및 정책성과 모니터링을 위해 생활 기반시설(보육, 공원, 교통, 보건의료, 복지, 문화, 체육시설) 접근성 등을 표시할 수 있는 지표

<노후건축물 현황 (격자형지표/행정구역별 통계(세종특별자치시))>



□ 격자형 국토지표는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정밀한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국토지표다.

○ 현행 국토지표는 행정구역(시·군·구별)별 생활기반시설 총량을 통계 형태로 산출하고 있다.

○ 반면, 격자형 국토지표는 인구, 도로망도 및 시설 현황 등의 행정 정보를 융·복합하여 격자 형태로 표시하는 것으로서, 각 지자체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활 기반시설 접근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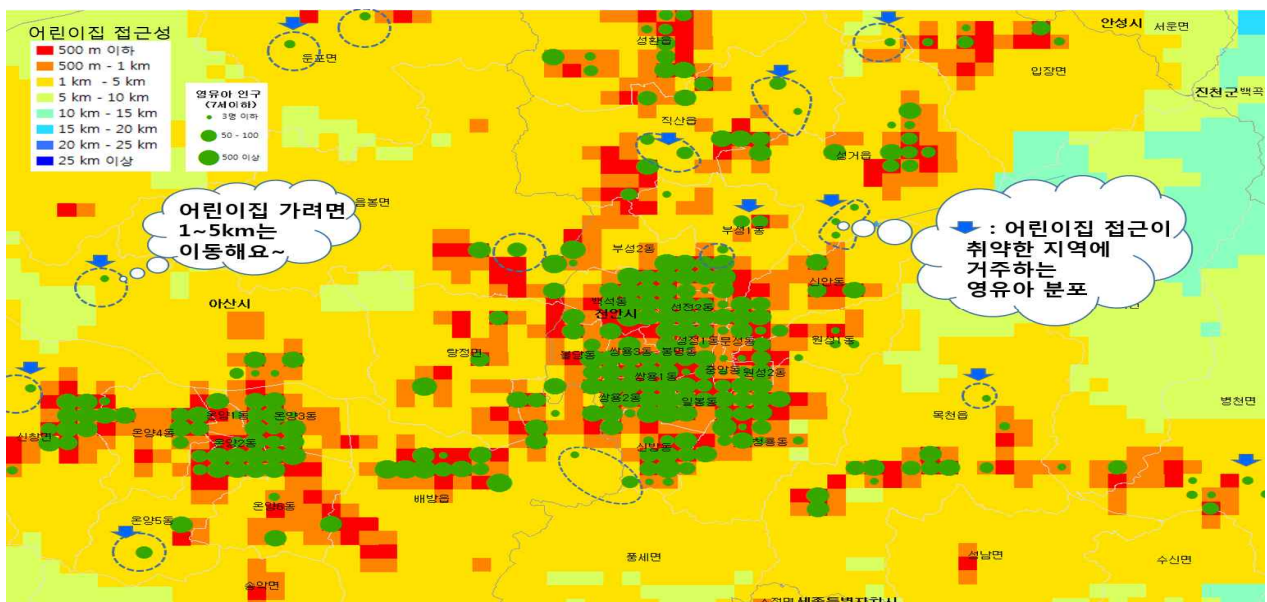
* 국토지리정보원의 “국토정보플랫폼(<http://map.ngii.go.kr>)의 지도보기/생활 기반시설접근성“에서 조회 가능

□ 한편, 국토부는 격자형 국토정책지표의 구축 및 활용가치 검증을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시범 운영한 바 있다.

○ 우선, 지난 '17년 2월부터 국토지리정보원과 함께 국토기본법 시행령과 국토정보의 생성 기준 등을 개정, 각종 행정 정보를 융합하여 국토 공간상에 표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 7월부터는 일선 시·군별 보육시설(어린이집) 등 현황을 격자 형태로 구축하여 접근성을 평가한 결과, 보육시설 총량이 많은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의 접근성이 부족한 경우도 있었다.

<어린이집 접근성 지표 활용예(천안/아산시 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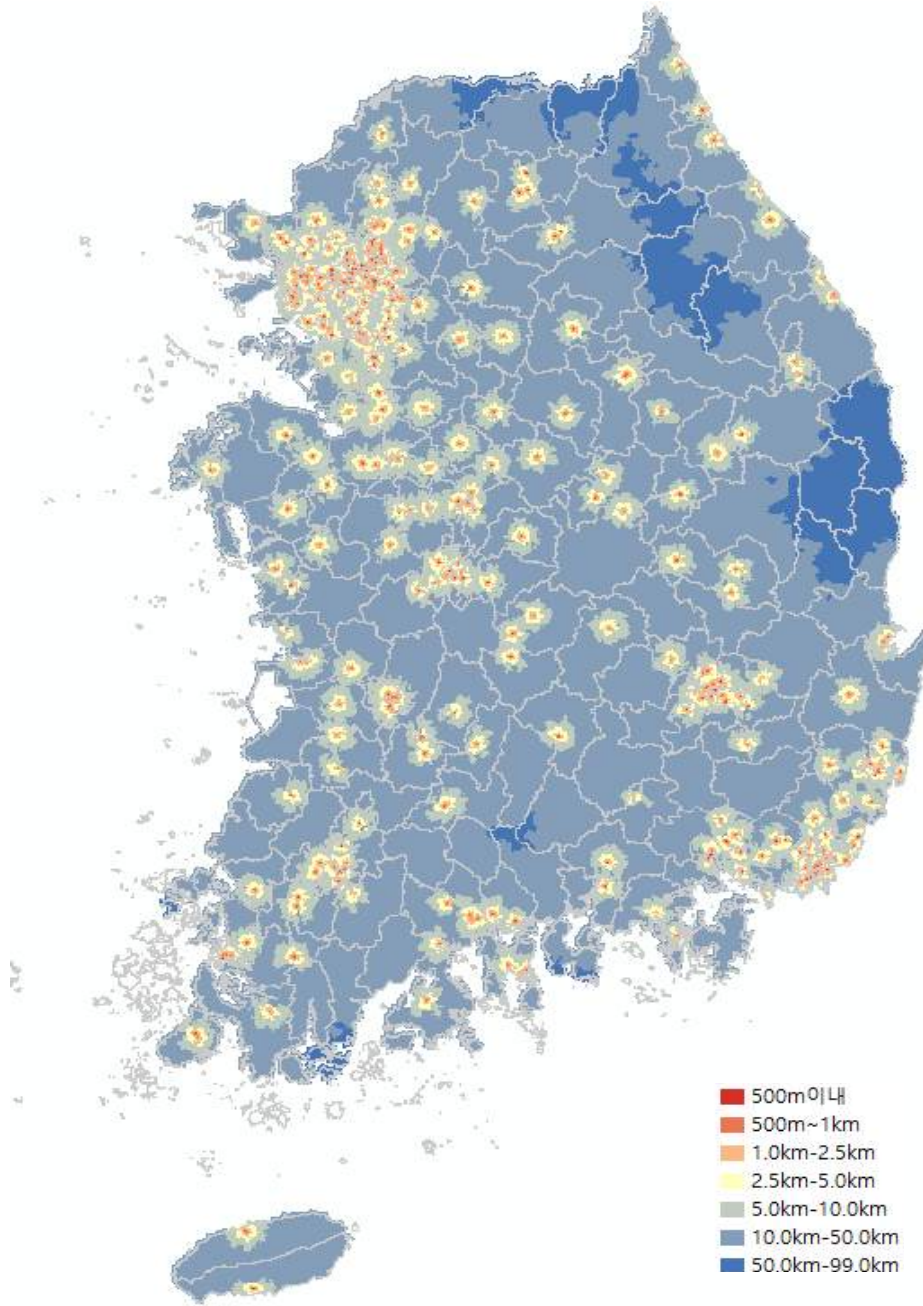


- 국토부 관계자는 “격자형 국토정책 지표를 활용한 접근성 평가는 저성장·인구감소 시대에 국민의 삶의 질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방식이다”라며,
- 앞으로, 격자 지표를 활용하여 접근성이 부족한 지역에 생활기반 시설을 확충하거나 대중교통 노선을 조정하는 등 맞춤형 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 한동훈 사무관(☎ 044-201-4731),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조사과 신상호 사무관(031-210-2690)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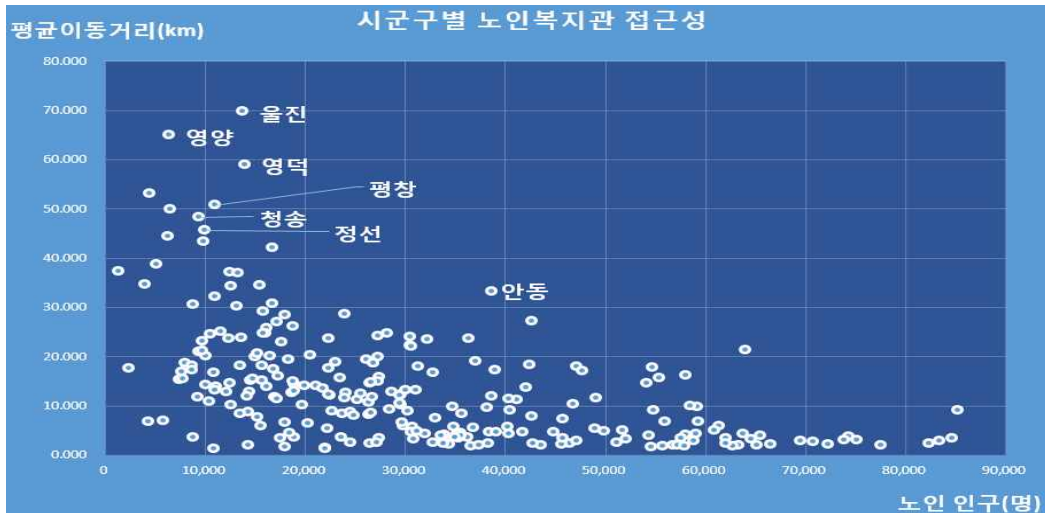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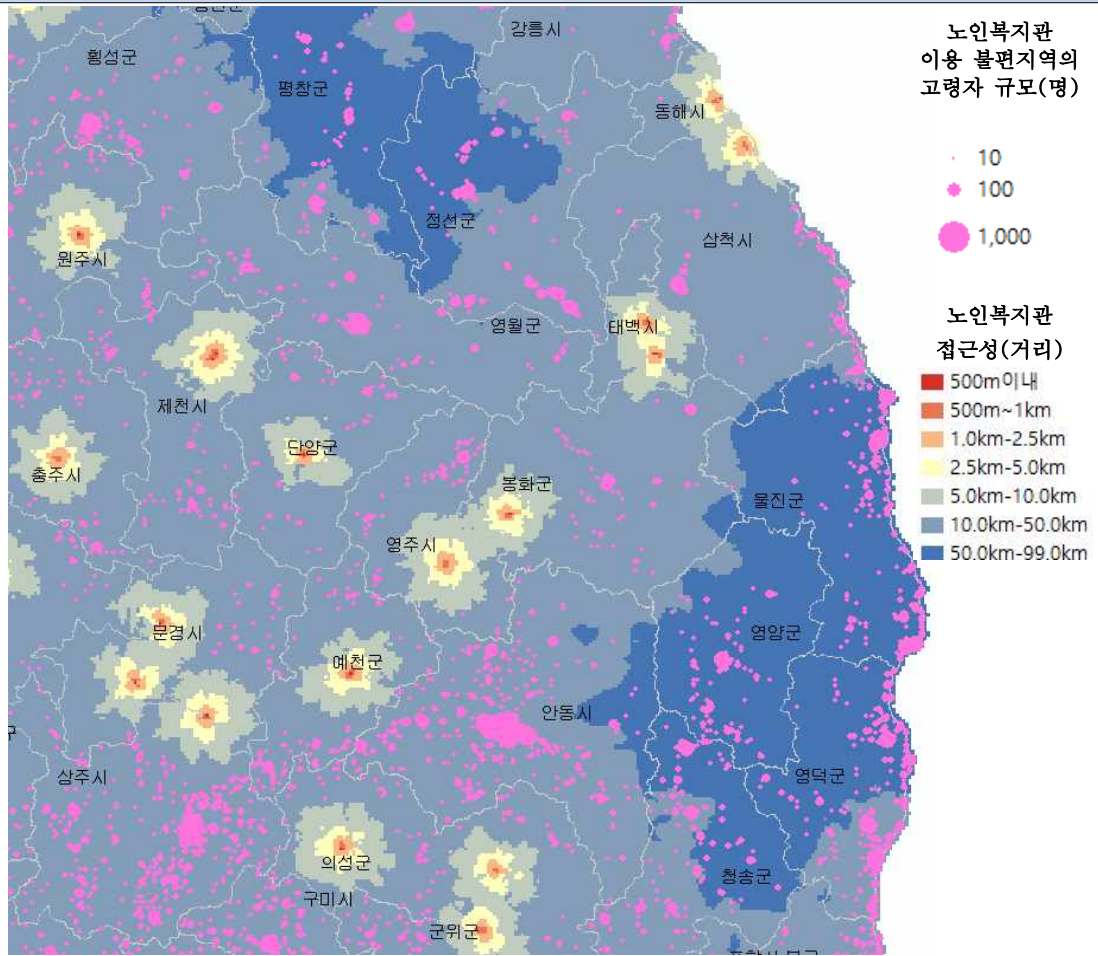
[1. 노인복지관 접근성] 가장 가까운 노인복지관까지의 도로이동거리



통계	접근성(거리)		접근성별 노인 인구분포(%)		노인복지관 접근성 지표는 각 격자로부터 노인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까지의 최단 도로이동거리를 측정된 자료이다. 전체 고령인구(65세 이상)의 2%만이 500m 이내 도보권에 거주하고 있으며, 54%이상의 고령인구들은 노인복지관까지 2.5km이상 이동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무거주지역제외			
최소값	70.1m	70.1m	500m 이내	2.0	
최대값	97.7km	97.1km	1km	8.0	
평균	21.6km	17.3km	2.5km	36.0	
표준편차	15.2km	12.9km	2.5km 이상	5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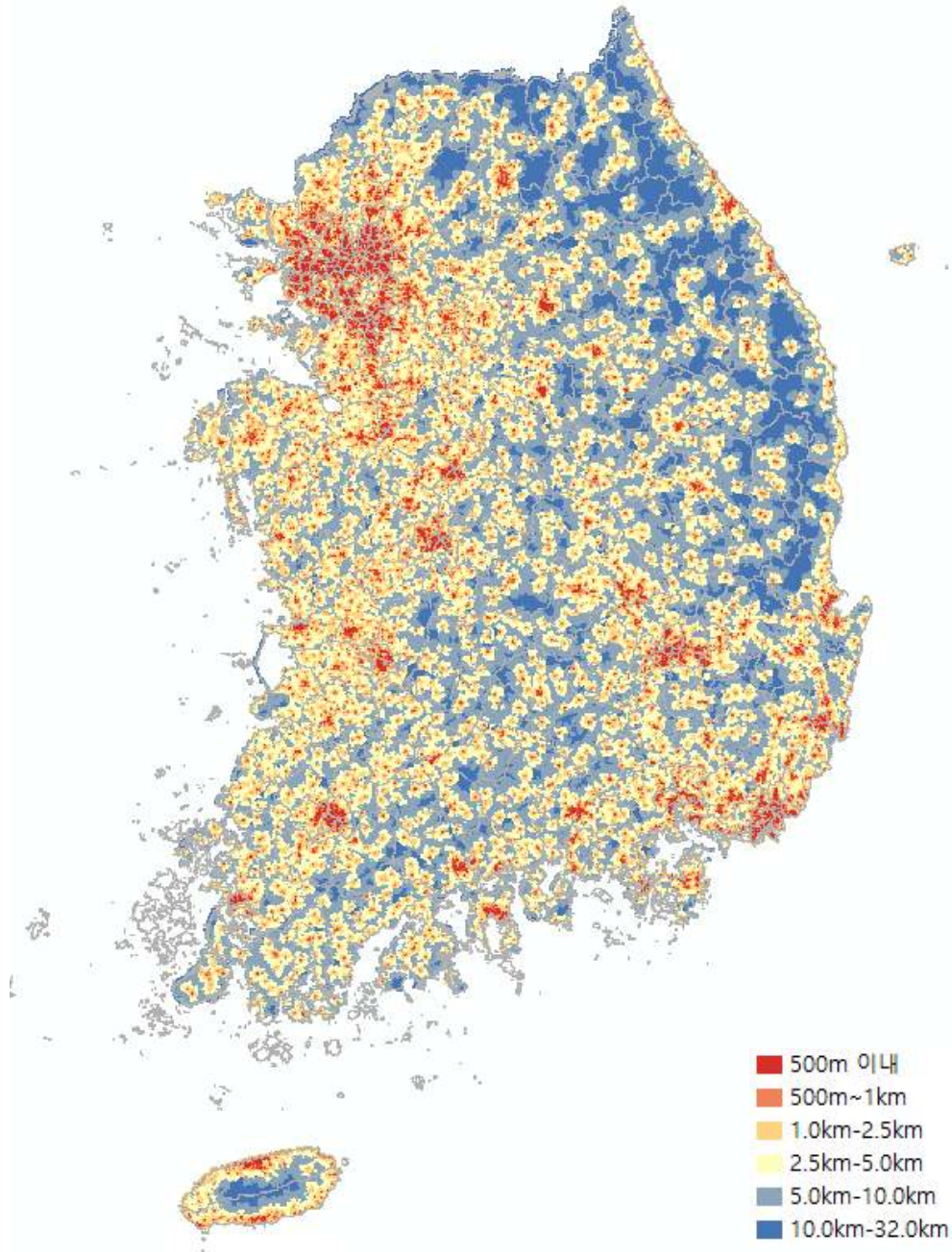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노인여가복지시설 정보를 수감가공하여 전국 노인복지관 데이터 구축
* 접근성 분석은 제주도, 울릉도 및 연륙교로 접근가능한 도서지역만 포함(그 외 도서지역은 제외)

노인복지관 이용이 불편한 고령자 분포(예시)



시군구별 노인인구규모 대비 노인복지관 접근성을 비교해 보면, 대체적으로 인구규모가 적은 시군이 노인복지관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평창, 정선, 안동, 영양, 청송, 영동, 울진 등은 노인복지관이 없어 복지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노인들의 불편이 예상

[2. 보육시설 접근성] 가장 가까운 어린이집·유치원까지의 도로이동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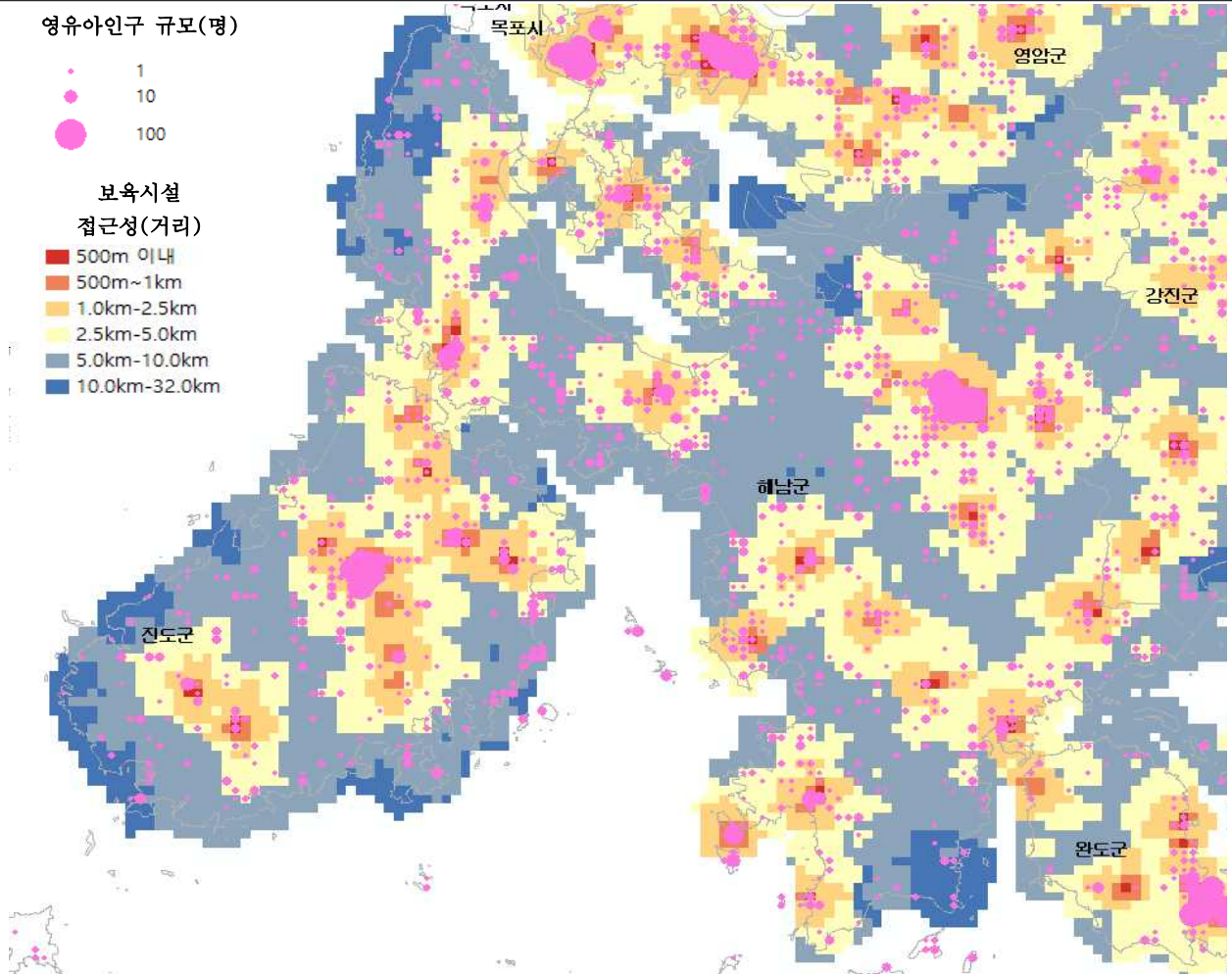


통계	접근성(거리)		접근성별 영유아 인구분포(%)		보육시설 접근성 지표는 각 격자로부터 어린이집, 유치원까지의 최단 도로 이동거리를 측정한 자료이다. 전체 영유아 인구(0세-7세)의 약 81%는 500m 이내 도보권, 약 95%는 1km 이동거리권에 거주하고 있으며, 나머지 5%는 2.5km이상을 이동해야 보육시설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무거주지역제외	500m 이내	81.1	
최소값	16.9m	16.9m	1km	94.9	
최대값	31.0km	26.3km	2.5km 이상	1.8	
평균	5.2km	3.6km			
표준편차	3.89km	2.84km			

[자료]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어린이집 정보,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유치원 정보를 수집·가공하여 전국 보육시설 데이터 구축

* 접근성 분석은 제주도, 울릉도 및 연륙교로 접근가능한 도서지역만 포함(그 외 도서지역은 제외)

보육시설 이용이 불편한 영유아 인구 분포(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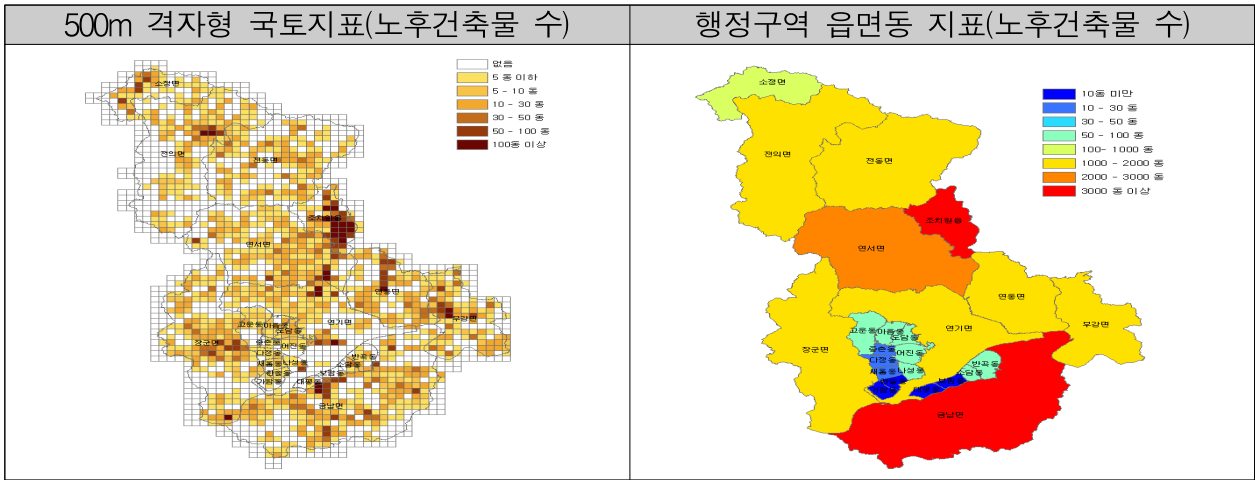


시군구별 영유아 인구규모 대비 보육시설 접근성을 비교해 보면, 대체적으로 인구규모가 적은 시군이 보육시설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진도, 해남 등 호남 해안지역은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5km 이상 이동해야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영유아 인구가 비교적 많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육시설 접근성이 좋은 지역이라도 수요 대비 공급에 대한 체감도에 대한 진단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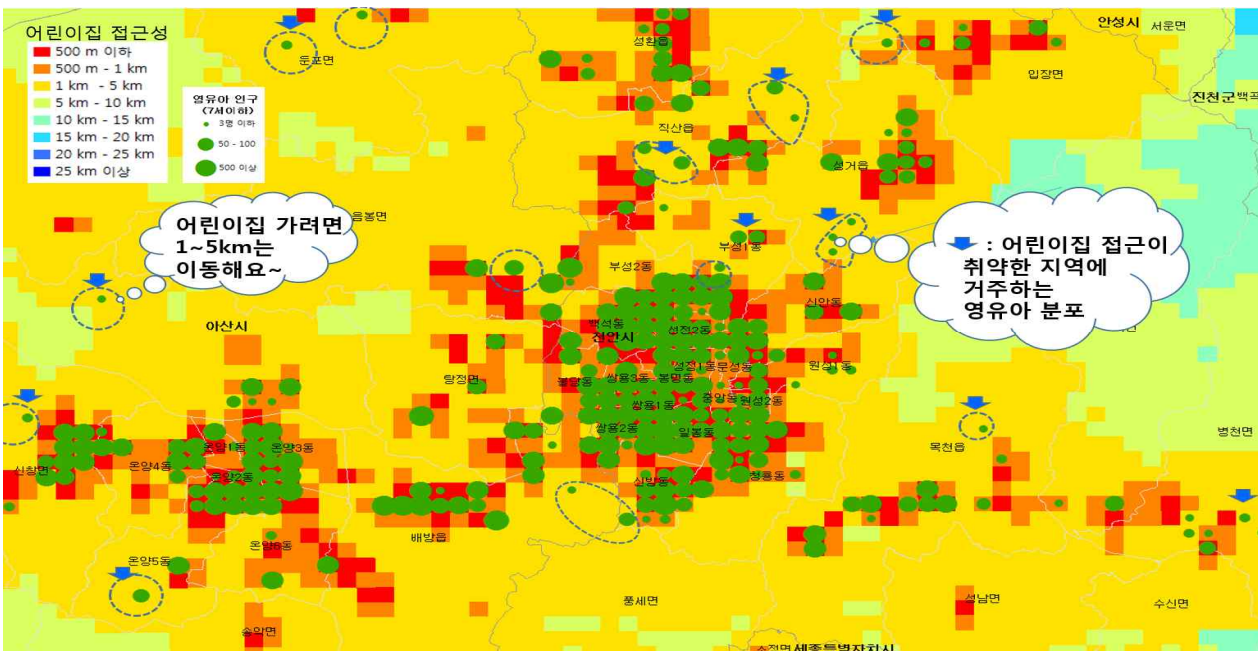
별첨 2

격자형 국토지표 및 정책활용 예시

□ 격자형 국토지표 vs. 행정구역 지표



□ 격자형 생활기반시설 접근성 지표의 개념 및 활용



□ 격자형 국토지표의 정책활용 예시

< 건축통계, 인구통계 자료융합을 통한 지역내 안전제고 방안 모색>

이슈 정부청사가 가까이 있는 원룸에 이사 왔어요
늦은 밤 퇴근이 많은데...안전할까요?



2007년 주거용 건축물 분포

세움터(건축물대장) 자료를 연계하여 최근 새롭게 건축된 건물 밀집지역을 확인



2013년 주거용 건축물 분포

*사건사고 밀집지역에도 적용가능하여 범죄예방 지원

해법 안전안심 동네만들기를 위해 원룸촌에 CCTV설치 점검 및 추가 설치지역 탐색




주민 안전을 위해 CCTV 추가설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격자 통계 활용 예시안 : 주거용 건축물 비율을 이용한 인구추계>


이슈 새로 이사오신 고령자들이 복지시설(요양원)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제보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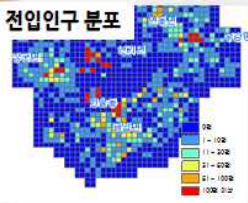
민원발생지역



고령자분포




복지시설접근성



전입인구 분포

해법 노인요양시설 활용 수요를 파악하여 세종남부권에 공공 또는 민간시설 유치



노인복지 사각지대

구분	65세 이상 인구(명)	비율(%)	누계(%)
0.5km 이내	1,683	8.8	8.8
0.5-1km	4,563	15.1	24.0
1-2km	7,643	16.2	40.1
2-3km	9,928	12.0	52.1
전체	19,039	100.0	100.0